

충청북도

공감의!길



다름을 걷고 마음을 잇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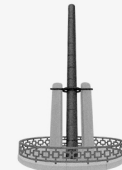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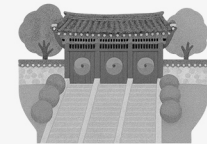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

공감의!길



다름을 걷고 마음을 잇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Contents



PART 01

충청북도 어울리길이란?



PART 02

종교의 의미



PART 03

공감의 길을 함께 걸어요!

공감의 길을 떠나기 전에!

정해진 시간도, 짜여진 일정도 없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탐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에는 **각 장소의 개방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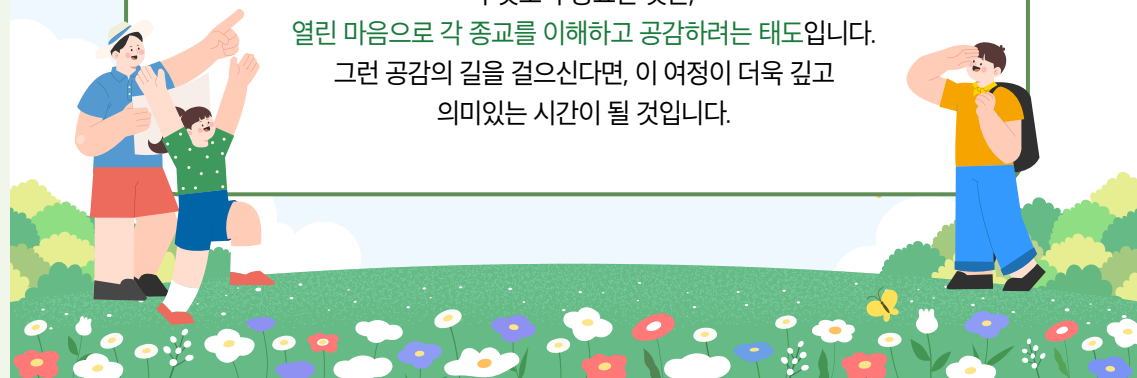
장소에 따라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이때에는 **조용히 주변을 관람**하거나 **시간을 달리해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시설을 찾으실 때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시고, 음식물 섭취는 피해주세요.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내문과 현장 지침을 확인한 뒤
조용히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종교의 전통과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안내책자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책자 **상단의 QR코드**를 활용해
장소별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 이어폰을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각 종교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공감의 길을 걸으신다면, 이 여정이 더욱 깊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PART 01 어울리길이란?



홍보영상QR



어울리길 소개

어울리길, 함께 걷는 평화의 여정

충청북도는 오래전부터 백제·고구려·신라가 맞닿던 자리이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중원문화'라는 독자적인 빛깔을 지켜온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종교문화유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서로 다른 종교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며 공존해 왔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바램은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길 말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어울리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 갈래 길이 만나 하나로 이어지는 회전교차로에서 영감을 얻어, 두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종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함께 걷고 소통하는 만남의 길,
둘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희망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차이를 넘어선 화합의 가치를 새기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길 전체코스



PART 02 종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religare에서 비롯된 '종교(religion)'라는 말은 're'(다시)와 'ligare(연결하다)'가 결합하여 '다시 묶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신,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준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에는 불교 용어를 빌려 '종교(宗敎)'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종(宗)'은 진리를, '교(敎)'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종교는 특정한 신을 믿거나, 깨달음을 얻은 성인의 삶을 따르거나, 혹은 인간이 세운 가르침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교를 믿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 줍니다. 병이나 재난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혹은 삶이 힘들고 답답할 때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위안을 얻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각 종교가 전하는 가르침은 올바른 삶의 방향과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며, 개인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종교는 공동체를 만드는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나누는 이들이 모여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예배와 법회, 제례 같은 의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이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주어 외로움이나 단절감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키워 줍니다.

나아가 종교는 인간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의미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종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와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역시 오랜 세월 다양한 종교와 함께해 왔습니다. 보은 법주사는 1,2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의 중심지로 자리했고, 유교는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도덕과 학문을 이끌었습니다. 천주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스스로 받아들인 종교로, 초기의 심한 탄압을 신앙으로 견뎌내며 진천 배티성지와 제천 배론성지 같은 순교지를 남겼습니다. 개신교 역시 신대리 교회에서 지역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내 곳곳에서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과 삶의 흔적을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삶에 방향과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구원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으로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을 전하며,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사회 질서를 세우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표현과 방식은 달라도,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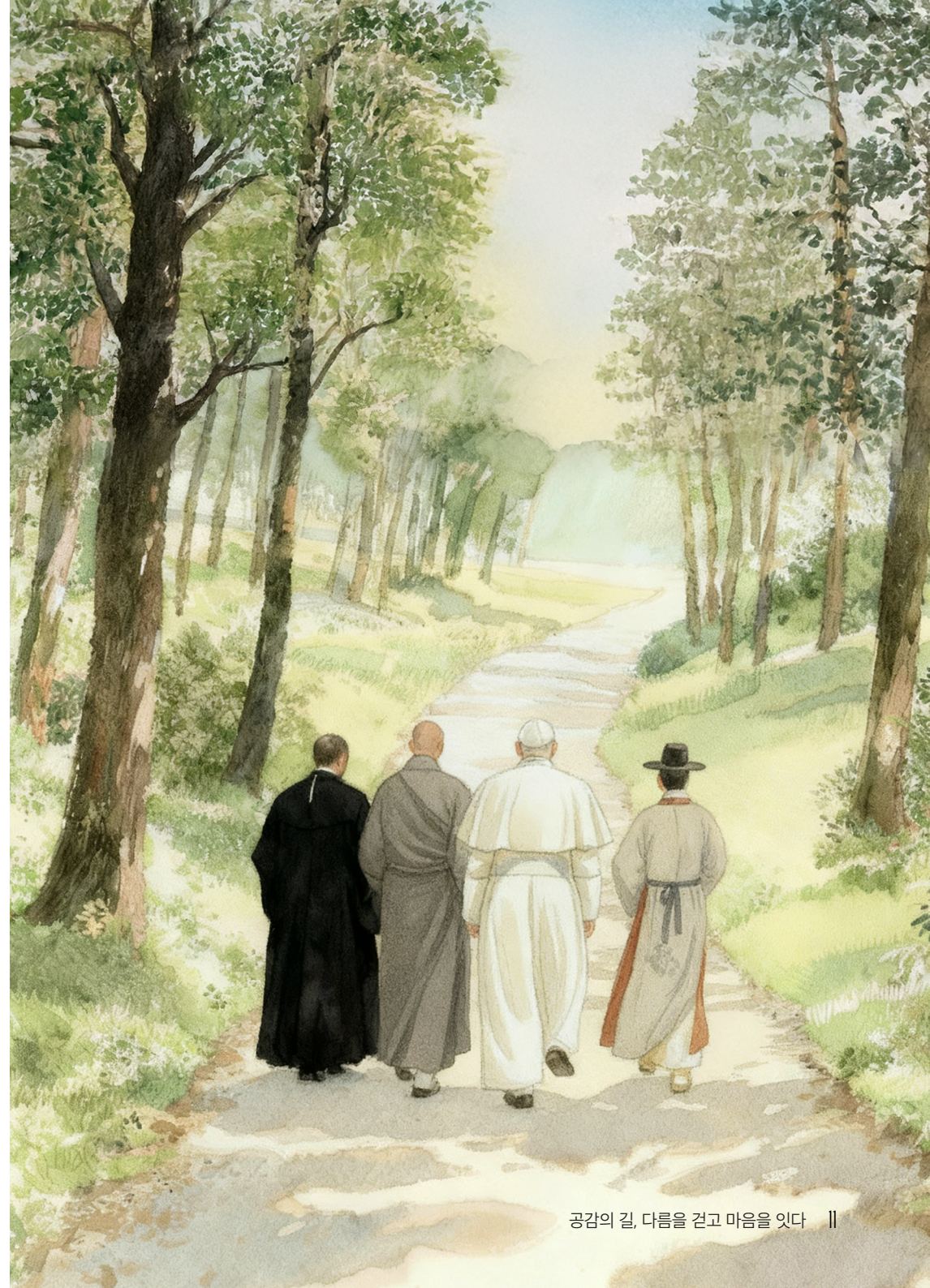
이번 종교평화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종교의 뿌리와 가치를 함께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각 종교는 신앙의 대상과 교리, 문화, 의례가 다르지만,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마다 표현은 달라도 그 속에 담긴 가치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전통을 존중하며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평화와 공존의 길을 발견하는 소중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PART 03 공감의 길을 함께 걸어요!

이 길은 서로 다른 신앙과 전통이 맞닿는 평화의 여정입니다.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이 한데 어우러진 길 위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름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가치와 인간적 바램이, 걷는 이를 조용히 감싸 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서로 다른 신념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흔적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 여정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공감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존과 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길입니다.





청주 탐동 양관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탐동 언덕에 올라서면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흔히 “양관(洋館)”이라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서양식 건물’이란 뜻이지요. 이곳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청주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 충청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지은 건물입니다.

이곳에 양관을 세워 충북 개신교의 바탕을 이룬 인물은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입니다. 1904년에 청주읍 동편의 언덕땅을 사고 1905년 여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여 1932년까지 55,000평의 땅에 여러 동의 서양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선교기지, 선교사 주택, 병원,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선교와 의료,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붉은 벽돌의 이 건물들은 언덕 아래 기와집이나 초가집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얀 울타리에 파란 잔디가 깔려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은 한국인들에게는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붉은 벽돌에 기와지붕을 얹은 양관은 한옥과 서양식이 혼합된 과도기적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근대 선교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0년 간 충청 지역 선교 거점으로 쓰이던 양관은 이후 청주사범학교 기숙사, KBS 청주 방송국, 인민군 야전병원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신학원의 역사기념관과 상담실 등으로 쓰이며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종교활동 공간을 넘어, 서양의 근대문물이 전해지는 통로이자 교육·의료·건축 등을 통해 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탐동 양관은 1983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주 탐동 양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학교·교회·병원·선교관·선교사 묘지가 함께 어우러진 청주 선교기지 유적의 한 축이었습니다. 당시 청주 지역에서 서양 문화를 접목하고 새로운 근대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청주 탐동 양관이 세계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위 예비목록에 올라있어 2030년 안에는 등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과 평등사상을 전하며 지역 근대성의 발원지가 된 이곳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6동의 양관 중 1호와 2호는 일신학원의 울타리 밖에 있으며, 3~6호는 일신학원 내부에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꼭 사전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루카복음 24장 36절)

탐동 1호 양관과 2호 양관

1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탐동로32번길 17-6
개방시간 : 개방불가(개인소유)

2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탐동로24번길 9
개방시간 : 수, 금, 토(상시) / 월, 화, 목(오전만 개방)
문의사항 : 청주성서신학원 043-253-6414



탐동 양관 1호, 2호

솔타우 기념관

1호 양관은 1921년 청주에 도착하여 18년 동안 활약하였던 소열도(蘇悅道, T. S. Soltau) 선교사가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하여 솔타우 기념관 혹은 소열도 기념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발자취가 남아 있는 이 공간은 지금도 당시 선교사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퍼디 기념관

현재 청주 성서신학원으로 사용 중인 2호 양관은 '퍼디 기념관' 또는 '부레선 목사 기념 성경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레선(Jason G. Purdy, 1897~1926) 선교사는 1923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청주 선교부에 부임하여 온 힘을 다해 선교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926년 봄, 영동 조동교회 순회 방문하던 중,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몽고메리 여사는 한 달 후 미국으로 귀국하여 친지와 교우들, 전국 주일학교의 성탄절 헌금을 모아 청주 선교부로 보내왔고, 그 정성이 모여 마침내 1932년 성경학원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퍼디 기념관'이라 부르는 것은 젊은 선교사의 희생과 부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탐동 3호 양관과 5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 (청주 일신여자중·고등학교 내)
개방시간 : 학교 사전 연락 후 관람 가능
문의사항 : 3호관 일신여자중학교 043-256-7322
5호관 일신여자고등학교 043-256-7560



탐동 양관 3호, 5호

밀러 기념관

1910~1911년에는 양관 두 채가 더 지어졌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4호 양관을 중심으로 북쪽에 한 채, 남쪽에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북쪽에 세워진 이 건물은 오랫동안 민노아 선교사 가족이 살았던 공간으로, 그의 선행을 기리며 '밀러 기념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맥클렁 성경학원

5호 양관은 1910~1911년 무렵 지어진 양관 두 채 중 하나입니다. 4호 양관을 중심으로 북쪽에 한 채, 남쪽에 한 채가 들어섰지요. 이 중 남쪽에 세워진 이 건물은 청주선교기지 성경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미국 캔터키주 위치타(Wichita)에 살던 맥클렁(J. S. McClung) 부부는 해외 선교의 꿈을 꾸다 일찍 세상을 떠난 두 아들, 그레이스와 로버트를 기리며 800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이 건물을 세우고, 기부자의 이름을 따 '맥클렁 성경학원(McClung Bible Class Building)'이라 하였습니다.



탐동 4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내)
 개방시간 : 학교 사전 연락 후 관람 가능
 문의사항 : 일신여자고등학교 043-256-7560



포사이드 기념관

1906년 완공된 4호 양관은 6동의 양관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윌크스 베어(Wilkes Barre)에 사는 친구들이 보내준 500달러와 시카고에 사는 포사이드(H. M. Forsythe) 부부가 보내준 3,000달러로 세워졌으며, 기부자인 포사이드 부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포사이드 기념관은 양관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서양식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붉은 벽돌과 아치형 유리창 등을 제외하면, 기와지붕과 처마 장식, 주춧돌을 사용한 점 등이 전통 한옥과 흡사하지요.

4호 양관이 거의 완성될 즈음인 1906년 8월, 청주에 큰 홍수가 나서 무심천이 범람해 청주 시내 200여 가구가 물에 휩쓸리는 난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재민들은 탐동 언덕 선교 기지로 피난하였는데, 민노아 선교사는 이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양 선교사에 대해 부정적이던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선교 활동의 길도 한층 넓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지요, 선지자니라.”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2절)

현재 이 건물은 ‘충북 기독교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을 담은 옛 사진과 기록들, 실제 사용했던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탐동 4호 양관 내부

! 여기서 잠깐!

Q. 교회에 다니면 술, 담배는 진짜 못하나요?

A.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술은 위장병을 앓고 있던 디모데 목사에게 약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충북 최초의 선교사 민노아 목사는 금주운동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술을 통해 가정이 망가지고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



민노아 선교사



찬송가 음원 QR

민노아(F. S. Miller, 1866~1937) 선교사는 1892년 뉴욕 유니온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 그해 11월 미국 북장로 교회 해외 선교부의 임명을 받아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그는 언더우드가 설립한 “예수학당”의 제 3대 학당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학당 이름을 “민노아학당”으로 바꾸고, 이곳에서 일반교육과 실업교육 등 실용적인 교육에 힘쓰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성경번역위원회의 서기와 위원장을 맡아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찬송가를 편찬할 때, 장로교 대표로 참여하여 최초의 연합찬송가를 편찬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편찬한 찬송가는

1908년부터 1932년까지 25년 동안 한국교회 예배에서 널리 사용하였으며,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집의 최다 작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곡 :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 427장 “맘 가난한 사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에서 11년을 활동한 민노아 선교사는 1904년, 청주에 선교부를 설립하고 경기도 남부 지역과 충청 지역 선교에 힘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청주에 양관 6동을 건축해 선교사들의 거처와 업무 공간 및 교육 공간, 근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지요. 특히 4호 양관을 지을 때는 천주교인들이 박해받던 옥터의 바닥돌을 출입구에 깔고, 백두산 금강송으로 대들보를 만들었으며, 탑동 언덕의 흙으로 벽돌을 구웠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정서와 전통을 중시하는 마음을 건축물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민노아 선교사는 경기와 충청권에 4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남학교(청주), 청동학교(청천), 청북학교(목방), 청서학교(신대), 청신여학교(청주), 객신여학교(괴산) 등 근대 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또 소민병원을 세워 근대 의료를 시작하였으며, 한강 이남의 5대 장날로 유명했던 청주 시장에서 매주 40여 종의 전도지를 제작해, 연간 10만부, 총 100만부 이상을 배포함으로써, 개신교의 교세 확장과 함께 충북의 근대 교육 및 사회복지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
_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탑동 6호 양관



탑동 6호 양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 내)

개방시간 : 학교 사전 연락 후 관람 가능

문의사항 : 일신여자고등학교 043-256-7560

던컨 기념관

6호 양관은 우리에게 소민병원(蘇民病院)으로 더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청주 선교부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공감한 미국 뉴욕의 던컨(J. P. Duncun) 부인이 5,000달러를 흔쾌히 기부하면서 1910년 4월부터 병원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1912년 7월 드디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부자인 던컨 부인의 선행을 기리고자 던컨기념병원(Duncun Memorial Hospital)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후 던컨 부인의 추가 지원으로 진료실과 수술실 등을 갖춘 근대 병원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지역사회에 큰 빛이 되었지요.



청주 성서신학원 제공



청주 서운동 성당 |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41
개방시간 : 6:00 ~ 20:20 (월, 목 18:00)
문의사항 : 043-252-6984



서운동 성당



청주 서운동 성당은 청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본당입니다. 본당은 늘 주임신부가 함께하며 신자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성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운동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청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꽃 피워 온 특별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당이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여정이 있었습니다. 1933년 6월 23일, 괴산 고마리 본당과 대전 본당의 일부 지역을 나누어 '청주 본당'이 설립되었을 때, 처음으로 청주에 굳건한 신앙의 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뒤 1957년에는 내덕동 본당이 새로 분리되면서 이름을 '북문로 본당'이라 불렀고, 다시 1963년 7월 25일 현재의 성당이 완공되면서 지금처럼 '서운동 본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이름이 바뀌고 자리가 새로워진 시간들 속에서도, 성당은 언제나 신자들과 함께하며 희망과 믿음을 지켜온 청주의 신앙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반지 바오로



오반지 바오로



서운동 성당에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신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하느님의 종' 복자 오반지(吳盤池, 1813~1866) 바오로입니다. 1813년(순조 13), 충청도 진천의 반지마을(옛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서 태어난 그는 한때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4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우연히 천주교 신앙을 접한 그는 큰 감화를 받아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으며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인 뒤 오반지 바오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적 체념으로 자신의 본분을 성실히 지켜나갔습니다.

1858년, 가족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진천 지장골(옛 진천읍 지암리)로 이주한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박해자들의 귀에도 들어가,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청주에서 파견된 포교와 포졸들이 지장골로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습니다.

청주 진영(鎭營)으로 끌려간 그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영장(營將)은 그의 믿음을 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오반지 바오로는 절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 신자들에게도 자신처럼 행동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교우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남의 빛을 갚아라. 그리고 만일 잡히게 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여라."라는 당부가 담긴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866년 3월 27일(음력 2월 11일), 오반지 바오로는 청주 읍청당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영장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그는 단호히 "만 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소."라고 대답한 뒤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53세였습니다.

순교 직후 그의 시신 위로 푸른 무지개가 떠올라 하늘까지 닿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그의 묘소 앞에 서면,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하느님을 선택한 한 인간의 굳센 발자취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천주교 박해



천주교는 처음 중국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학문이나 서양 문화처럼 여겨졌습니다. 정조는 유교가 잘 지켜지면 천주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해 처음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평등 사상과 제사 금지 같은 가르침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과 충돌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집권 세력은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조선의 첫 탄압은 1785년(정조 9) 명례방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李承薰, 1756~1801)과 이벽(李磬, 1754~1786), 권일신(權日身, 1751~1791) 등이 서울에서 미사를 올리다 발각되었고, 중인 김범우(金範禹, ?~1786)가 투옥되어 사망하면서 천주교 최초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1791년(정조 15) 신해박해에는 윤지충(尹持忠, 1759~1791)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가 참수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체포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1795년(정조 19)에는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을묘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방에서도 박해가 이어져 1797년(정조 21) 충청도에서는 100여 명이 희생되었고,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수백 명이 체포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사영

(黃嗣永, 1775~1801)은 배론성지에 숨어 천주교 박해 상황을 기록한 '황사영 백서'를 작성했습니다.

박해로 천주교인들은 산골 마을로 흩어져 서로 도우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1846년(헌종 12) 병오박해와 1866년 병인박해 때도 많은 신부와 신자가 순교하였고, 서울 잠두봉에서는 수천 명이 참수되어 '절두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1882년(고종 19) 조미수호통상조약과 1886년(고종 23) 한불수호통상조약으로 박해가 줄어들면서, 순교자들이 지킨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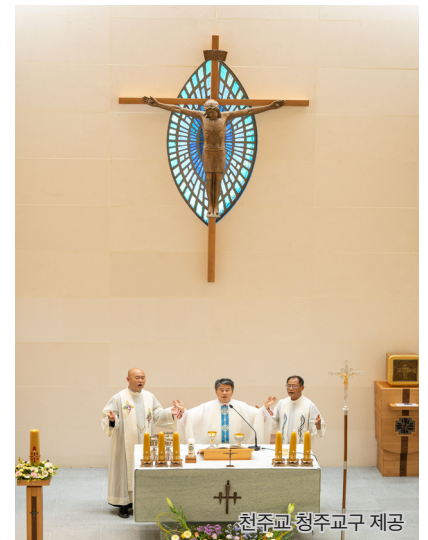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

! 여기서 잠깐!

Q.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A.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와도 하느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죽음을 넘어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부활에는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끝내고 하느님의 빛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천주교 청주교구 제공

청주 제일교회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개방시간 : 9:00~18:00 (본당 건물 외 상시개방)
 문의사항 : 043-256-3817



청주 제일교회의 시작은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노아(F. S. Miller) 선교사와 김흥경 조사가 힘을 모아, 청주 남문 밖에 여섯 칸짜리 초가집을 마련하고 세운 '청주읍교회'가 그 첫걸음으로, 오늘날 청주 제일교회의 뿌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1909년(순조 2) 박정찬 장로를 임명하며 충북 최초의 조직교회로 발전하면서 충북 선교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원래 이곳은 청주영장(營將) 관사와 옥사가 있던 곳으로,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시기에 수많은 신자가 신앙을 지키다 고문과 순교를 겪은 천주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1906년 민노아 선교사와 김흥경 장로, 초창기 교인 김원배가

이 땅을 사들여 한옥 예배당을 세우면서, 고통과 죽음의 장소를 생명과 복음의 공간으로 바꾸는 신앙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예배당은 한옥 구조에 고딕양식을 더해 동서양의 문화를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주 제일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충북 근대교육과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우리나라와 충북 지역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인 김원배, 방흥근은 청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인 '광남학교'를 세웠고, 민노아 선교사의 부인 도티(Dottie) 여사는 '청신여학교'를 운영하며 충북 최초의 여성 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어 세광중고등학교·청신고등공민학교·상당유치원·성경학원·YMCA·YWCA 등 수많은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의 요람이 되었고, 독립 이후에는 사회 안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북한군의 지휘 본부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당시 미군의 탈환 작전 중 교회 건물에 남은 총탄 자국은 오늘날까지 그 격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언합니다. 이후 1960~1980년대에는 교회 청년과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청주 지역 시민 운동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청주 제일교회도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희망무지개 자원봉사단, 2012년 푸드뱅크를 세워 지역의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와의 화해와 연대를 위해 2021년에는 천주교 순교지 정비사업에 함께 하며 추모 공원을 조성하였고, 민주화운동 열사인 최종철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주 제일교회는 지난 시간 속에서 늘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읍성 남문 밖 순교터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59 (남문사거리)
개방시간 : 상시 개방



남문 밖 순교터



청주읍성 남문 밖, 옛 장터가 있던 자리에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복자 김사집 프란치스코 (1744~1802)의 순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본래 이름은 성욱이었던 그는 1744년(영조 20) 충청도 덕산의 비방고지(지금의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창말)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를 준비하던 중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세속의 학문 대신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교회 서적을 손수 베껴 나눠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801년(순조 1)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덕산 관아에 체포되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신앙을 버리도록 갖은 회유와 모욕을 가했지만, 김사집은 굳건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청주로 압송된 그는 청주 장터에서 모진 형벌을 받은 끝에 58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김사집 프란치스코는 212년이 흐른 뒤인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남문 밖 순교터는 그의 믿음과 용기를 기리는 신앙의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주읍성 북문 밖 순교터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2 (북문사거리)
개방시간 : 상시 개방



북문 밖 순교터



청주읍성 북문 밖에는 옛날 청주 장대터가 있었습니다. 장대란 군대의 지휘소가 있던 곳으로, 지금은 신앙을 굳게 지킨 복자 장 토마스(1815~1866)가 순교한 자리입니다.

장 토마스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느지지(옛 요당리)에서 태어나, 육촌형 성 요셉 장주기 (1803~1866)와 함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친한 배티에 정착해 신앙 안에서 성실히 살며 아들에게도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간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천주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청주로 압송된 뒤에도 회유와 고문은 이어졌지만, 그는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주 장대터에서 51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은 148년 뒤인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며 기려졌습니다. 오늘날 북문 밖 순교터는 그의 믿음과 용기를 기억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성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

A. 가톨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제대'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제대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제대는 신앙 생활의 중심이자,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청주 내덕동 주교좌 성당 제대



천주교의 주요 행사

🏰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

세계청년대회는 1984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 성년 희년을 맞아 전 세계 청년들을 초청하면서 시작된 국제적인 가톨릭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대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의 십자가'와 '로마 백성의 구원자 성모 성화'와 같은 상징 행사가 진행되며, 청년들은 기도와 미사,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신앙과 우정을 동시에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이 세계청년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많은 청년이 함께 모여 믿음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특별한 표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사는 예수님이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성사를 받으면 인간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성사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성사,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견진성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체성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성사,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혼인성사,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성직자가 되는 성품성사, 죽음을 앞두고 삶의 마지막에 받는 병자성사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성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청주 망선루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중앙공원)

개방시간 : 상시 개방



청주 중앙공원 북편에 우뚝 서 있는 청주 망선루(望仙樓)는 고려시대 관아 건물로, 본래는 청주 객관 동쪽에 자리한 누각이었습니다. 망선루의 원래 이름은 '취경루(聚景樓)'였으나, 조선시대에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망선루(望仙樓)'로 고쳐 부르며 현재에 이르고 있지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시를 읊고 세상의 정세를 논하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망선루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청주면 사무소, 청주여자 공립보통학교 건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21년, 일제는 청주경찰서 내 무덕전(武德殿)을 새로 짓는다는 이유로 망선루를 헐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유산을 없애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때 청주청년회의 회장이자 민족운동가였던 김태희(金泰熙, 1877~1937) 선생이 앞장서서 망선루를 사들여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청년회는 청주 선교부의

민노아 목사와 소열도 목사, 청주읍교회의 함태영 목사를 찾아가 망선루를 옮길만한 장소를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제일교회 구내 공터로 옮겨 청남학교 건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망선루를 옮기기 위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청년회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망선루 이전은 단순히 건축물 보존을 넘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사업이니,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청주청년회·시민·청남학교 교사와 학생·청주 선교부와 교인, 심지어 외지 후원자들까지 뜻을 모은 결과, 망선루는 무사히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제일교회 안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망선루는 더 이상 누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1, 2층의 탁 트인 사면 공간을 벽돌로 막아 벽을 만들고 유리 창문도 달았습니다. 1층 중앙에 교무실을 두고 양쪽 동서로 교실을 배치했으며, 2층에 3개 교실을 만들어 1924~1941년 동안 청남학교 건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청남학교는 청신여학교와 합쳐 청주 유일한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망선루는 당시 청주에서 근대적인 사립 초등 학교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건물은 야학 등의 교사(校舍)로 사용되었으며, 강연회·한글 강습회 등 각종 집회를 여는 공회당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1997년의 청주 망선루_충청북도 제공

해방 후에는 세광중등학교·청신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YMCA회관, 해방 후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북지부, 청주삼각소년단(대한 보이스카우트의 전신) 등 여러 단체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시민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망선루는 단순한 역사적인 건축 유산을 넘어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이자, 교육·사회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요.

77년간 청주 제일교회 안에 있었던 망선루는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낡아 무너질 위험에 처했고, 이에 청주시는 다시 한번 건물을 옮겨 복원하기로 결정하였지요. 1999년부터 건물을 해체하여 2000년 중앙공원 북편에 새롭게 세웠습니다. 오늘의 망선루는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은 채, 청주의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청주 영규대사 기적비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중앙공원)

개방시간 : 상시 개방



영규대사 기적비



중앙공원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과 함께 활약한 승병장 영규대사(靈圭大師, ?~1592)를 기리는 전장기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1974년에 건립되었으며, 원래 청주시 서문동에 세웠으나, 일제강점기 때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영규대사는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의 제자로, 계룡산 갑사 청련암에서 수도하며 무예를 익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3일 동안 통곡하며 스스로 승병장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영규대사는 1,000명의 승병을 모아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는 작전을 벌였고, 왜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후 700여 명의 의병과 승병을 이끌고 금산 전투에서 나섰으나, 인원이 적어 결국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영규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처음 일으킨 인물로 평가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승병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지금도 이 비석을 통해 기려지고 있으며, 매년 10월이면 충북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영규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대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교가 궁금해요!



유교는 개인과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삶의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철학은 발전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은 『삼강오륜』, 중요한 경전은 『사서삼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유교의 뿌리는 유학(儒學)입니다.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가 만든 유학은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자신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며, 나라와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유교에서는 ‘인(仁)’과 ‘예(禮)’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논어』에서는 인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람을 공경하며 올바르게 대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은 예를 통해 실천됩니다. 예는 형식과 예절을 갖추어 인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겉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음이 담긴 간소한 행동이 화려한 형식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닦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을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수신(修身)],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고[제가(齊家)], 나라를 평안하게 하며[치국(治國)], 결국 세상 전체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평천하(平天下)]. 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물을 연구하고[격물(格物)] 지식을 얻어[치지(致知)]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성의(誠意)], 바른 마음을 갖추며[정심(正心)] 행동을 수양하고(수신), 가정을 다스리고(제가), 나라를 다스려(치국)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평천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즉, 유교는 개인의 내면을 다지고 인을 실천함으로써, 가족과 사회, 나아가 나라와 세상까지 올바르게 이끄는 길을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마음과 행동이 점차 큰 세상까지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교의 목표입니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행하지 마라.”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논어, 안연)



청주 조헌전장 기적비 |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중앙공원)

개방시간 : 상시 개방



이 비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이 청주성 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기록한 전적비로, 1710년(숙종 36)에 세워졌습니다. 화강석으로 된 몸돌 위에 덮개돌을 얹은 모습입니다. 원래 상당구 서문동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 청주 중앙공원 동쪽 출입구 오른쪽 화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헌(趙憲, 1544~1592)은 이이와 성혼의 문하생으로, 학문과 국정에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600명의 의병을 모아 영규대사와 관군과 함께 청주성을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왜군은 성을 버리고 퇴각했습니다.

이어 조헌은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으로 진격했으나, 관군의 방해로 의병 대부분이 해산되고, 결국 700명의 의병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1754년(영조 30)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그는 고경명, 김천일, 박재우와 함께 임진 4충신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매년 청주성 탈환을 기념해 조헌과 영규대사, 박춘무 장군을 비롯한 의병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중앙공원 전장기적비 앞에서 거행되며, 그의 용기와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청주병영 순교지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중앙공원)

개방시간 : 상시 개방



청주병영 순교지



청주병영은 조선시대 병마절도사영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정곡루가 남아 있어 옛 병영 자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킨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799년(정조 3) 정사박해 당시 첫 순교자인 원시보(야고보)와 1800년 배관겸(프란치스코) 등이 이곳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으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정곡루 일대는 여러 순교자들이 신앙을 증명한 장소로, 충청병영으로 끌려와 고난을 겪고 순교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신앙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청주교구는 2002년 중앙공원에 순교자 현양비를 세웠습니다. 현양비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생의 깊이를 전해주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순교자들의 삶과 용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 국보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개방시간 : 상시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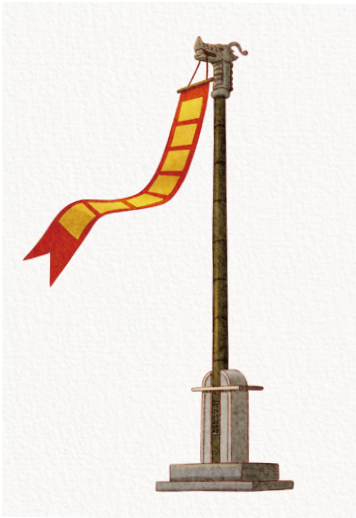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 성안길에는 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불교 유산,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이 서 있습니다.

‘당간(幢竿)’은 절의 상징 깃발인 ‘당(幢)’을 거는 기둥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찰에 당간이 세워졌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당간을 받치던 두 개의 돌기둥인 ‘당간지주(幢竿支柱)’만 남아 있습니다. 철로 만든 당간, 즉 철당간이 남아 있는 곳은 공주 감사와 안성 칠장사, 그리고 청주 용두사지 세 곳뿐입니다.

용두사지 철당간은 여러 개의 무쇠 통을 이어 붙여 만들었으며, 이를 받치는 지주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돌로 다듬어 세웠습니다. 지주의 안쪽에 홈을 파고 철 고리를 끼워 당간을 고정하는 정교한 구조입니다.



특히 당간의 세 번째 철통에는 '준풍(峻豐) 3년', 바로 962년(광종 13)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광종(光宗, 949~975) 때 청주에 큰 역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주의 호족 김예종과 김희일 일가 역시 병에 걸려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움에 의지해 사람들의 병이 사라지고, 죽은 이들도 극락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거대한 철당간을 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술과 재력이 필요했던 일이었지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은 우리나라에서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철당간이자, 청주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철당간만 남아 있지만, 그 위를 올려다보면 고려

사람들의 두려움과 간절한 바람, 그리고 부처님께 의지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한편 불교의 대표적인 행사였던 연등회는 한때 최승로(崔承老, 927~989)의 건의로 폐지되었으나, 이후 현종(顯宗, 1010~1031) 때 다시 열렸습니다. 1010년 거란의 침입으로 피난했던 현종은 이듬해 청주에 머물며 연등회를 베풀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의 용두사지가 그 장소로 추정됩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法句經)

! 여기서 잠깐!

Q. 사찰에서 보이는 만(卍)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A. 만자(卍)는 불교를 대표하는 기호입니다. 원래는 산스크리트어 '스바스티카(swastika)'에서 비롯된 것으로, '길상(吉祥)'과 '영원', '번영'을 뜻합니다. 만자의 네갈래 모양은 자비, 지혜, 방편, 평등의 네 가지 덕목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의 가슴이나 손바닥, 사찰 건물의 장식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불교 신앙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청주 향교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22번길 81

개방시간 : 9:00 ~ 17:00 (휴게시간 12:00 ~ 13:00)

문의사항 : 043-253-3365



청주병영 순교지



청주향교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국립 교육기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987년(성종 6) 전국 12목에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때 청주에도 향교가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청주향교는 중요한 교육과 제례의 중심이었습니다. 1444년(세종 26)에는 세종이 눈병 치료를 위해 청주 근처 초정에 머물면서 『통감강목』, 『통감절요집성』, 『통감훈의』, 『근사록』, 『소학』, 『한문』 등 여러 서책을 향교에 하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1464년(세조 10)에는 세조가 속리산으로 가는 길에 청주향교 문묘를 찾아 대리로 제사를 올리며 예를 갖추었고, 이로 인해 청주향교는 '삼남에서 으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주향교는 현재 충청북도청 동쪽으로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약 450m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향교는 크게 '문묘(文廟)'와 '학교(學校)'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외삼문을 지나면 명륜당이 있고, 내삼문을 지나면 대성전이 있습니다.



유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유교는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철학으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유교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정치와 사회,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구려는 372년(소수림왕 2) 태학(太學)을 세워 왕자와 귀족 자제를 교육했고, 지방에는 경당(庠堂)을 두어 청년들에게 유교 경전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백제도 비슷한 시기에 유교를 받아들였고, 일본에 유교를 전파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신라는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였고, 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국학(國學)을 세워 다양한 경전을 중심으로 교육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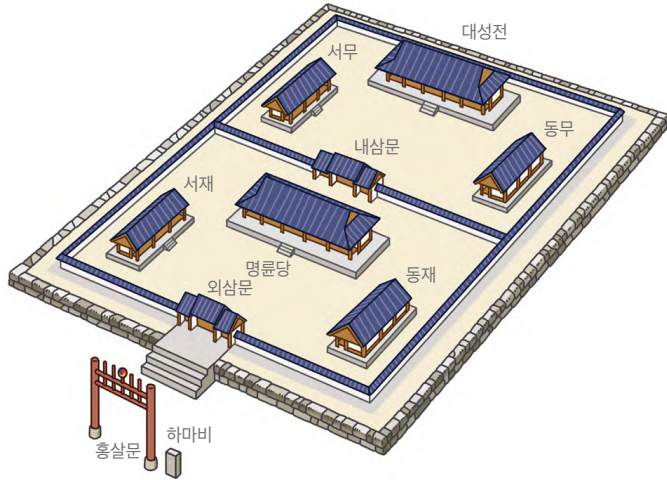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중심이었지만, 교육과 정치에서는 유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조(太祖, 918~943)가 남긴 「훈요십조」에는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고 교훈을 얻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 말 안향(安珦, 1243~1306)이 주자학을 받아들인 이후 성리학이 발전하였고, 조선 건국과 사회 질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도덕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유학이 발전했고, 실학과 함께 인간의 자주 의식도 길러졌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우리의 유교는 일제강점기, 민족정신을 억압하려는 식민정책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뜻을 지닌 이들의 노력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남아 있는 향교와 서원, 서당에서는 전통과 철학이 계속 전해지며, 우리의 역사와 인성을 배우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교의 주요 행사

유교 제례 중 가장 대표적인 의식은 ‘석전대제(釋奠大祭)’입니다. 향교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에게 올리는 제사로, 모든 유교 제례의 본보기이자 가장 규모가 큰 제사입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의식인 ‘석채(釋菜)’는 나물 종류만을 차려 올리는 단순한 제사인 반면, 석전은 익히지 않은 소와 돼지 등의 고기를 바치는 희생(犧牲), 제사 때 올리는 폐백(幣帛), 관악기·현악기·타악기를 모두 포함한 합악(合樂), 그리고 술을 올리는 헌수(獻酬) 등 성대한 의식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석전대제는 음악과 제물, 예법이 함께 어우러져 향교의 전통과 장엄한 예절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명륜당은 과거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로, 지금도 한복 예절과 한자, 한문 등을 배우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교의 중심인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29분의 성현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는 석전을 올려 성현의 가르침을 기립니다. 대성전 양 옆의 동무와 서무는 원래 송나라 6현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던 행랑채였지만, 1949년 이후 모든 위패가 대성전으로 옮겨지면서 현재는 제기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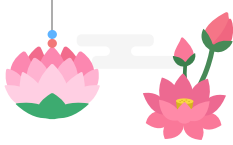
대성전으로 오르는 내삼문은 성현의 훈령이 드나드는 신문의 의미를 지닌 계단으로, 일반 방문객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쪽 계단으로 내려오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주향교에는 고대 중국의 성인 5명(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과 송나라 6현인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인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현,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등 모두 29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앎이다.”

知之爲知之, 不如爲不知, 是知也 (논어, 위정)

불교란 무엇일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이 말은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외는 염불입니다. 그 뜻은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시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비로운 부처님께 기대어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불교는 약 2,500년 전, 인도의 왕자 싯다르타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싯다르타는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그의 가르침이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慈悲)’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慈)’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悲)’는 고통받는 존재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법구경(法句經)

이 구절은 불교 자비 사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작은 마음도 큰 공덕이 됩니다. 일상에서 가족, 친구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자비 실천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모든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解脫)’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통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경지에 오른 상태를 ‘열반(涅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도(菩薩道)’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타적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어, 자신과 타인을 모두 돕는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한국 불교문화의 보물창고라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 불교가 깊게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고을마다 사찰이 들어서고, 그 속에서 독특한 건축 양식과 불교 예술, 수행 전통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우리나라 7개 사찰이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와 조화를 중시하는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사찰 곳곳에는 천년을 이어온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평화와 여유를 전해줍니다.

청주에는 천년고찰 용화사와 안심사, 보살사, 월리사 등 전통 깊은 사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통 사찰을 찾아 천년의 숨결을 느끼며, 불교가 지닌 고요한 가치와 마음의 평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잠깐!

Q. 절에서 목탁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목탁은 나무로 만든 타악기로, 예불이나 독경을 할 때 리듬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일정한 소리가 반복되면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산만한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목탁의 유래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도 전해집니다. 옛날 한 스님이 수행을 게을리하다가 물고기로 환생했는데, 죽은 뒤에는 자신이 다시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꾸짖어 달라는 뜻에서 “나를 목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탁은 물고기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수행자에게 늘 깨어 있을 것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청주 용화사

주 소 : 청주시 서원구 무심사로 565

개방시간 : 상시 개방

문의사항 : 0507-1325-2159

홈페이지 : <http://www.yonghwasa.com>



청주 용화사는 고종(高宗, 1864~1907)의 후궁인 엄비(嚴妃, 1854~1911)가 당시 청주군수였던 이희복에게 세우도록 한 사찰입니다. ‘용화사’라는 이름은 미륵불이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설법한다는 불교 경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용화(龍華)는 미륵의 정토, 곧 이상향을 뜻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엄비는 미륵불의 현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곳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1901년(고종 38), 궁궐에서 잠들어있던 엄비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큰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일곱 색깔 무지개가 자신의 거처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그 무지개를 타고 일곱 분의 미륵불이 궁으로 들어와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주의 한 늪에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있다. 절을 짓고 구해달라.”

엄비는 이를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청주군수 이희복에게 무심천 변에서 석불을 찾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곧 무심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7구의 거대한 석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불들은 원래 청주 지역의 여러 옛 절터에 있던 것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심천에 흩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엄비는 1902년 용화사를 창건하고, 이 석불상을 모셨습니다.



1960년대의 석조불상군



1970년대의 석조불상군

오늘날, 이 석불들은 ‘청주 용화사 석조 불상군’으로 불리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조 불상군은 불상이 5구, 보살상이 2구입니다. 가장 큰 불상은 5.5m, 가장 작은 불상은 1.4m로, 얼굴과 자세, 조각 양식도 각각 달라 원래 한 세트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는 삼불전에는 가장 큰 여래입상 3구가 삼존불처럼 모셔져 있고, 나머지 4구는 극락전에 자리합니다. 삼불전의 불상들은 섬세한 조각 솜씨로 보아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불상들은 조선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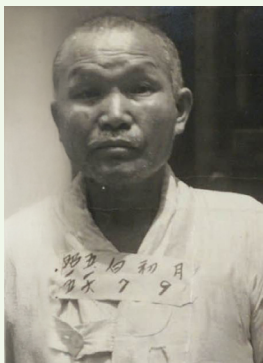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제공

이 석불군은 단순히 오래된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한자리에 모인 석불 하나하나에는 옛 사람들의 신앙과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천 년 가까이 이어져 온 그 믿음과 염원이 오늘까지 전해져, 용화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옛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그 앞에 서면 단순히 불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옛 청주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초월 스님



한 마음으로 빛이 되다



백초월 스님,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청주 용화사는 단순한 불교 사찰이 아니라, 뜨거운 독립운동의 현장이었습니다.

1918년, 백초월(白初月) 스님은 법주사 청주 포교당(현재의 용화사)에 부임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우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백초월 스님은 1878년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해 불교에 대해 깊이 공부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강의하며 명성을 얻었고, 1915년에는 중앙학림의 초대 교수로

내정될 만큼 학식과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백초월 스님은 화엄경의 '통만법명 일심(統萬法明一心)'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조선인이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굳혔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로 올라가 중앙학림에 '민단본부(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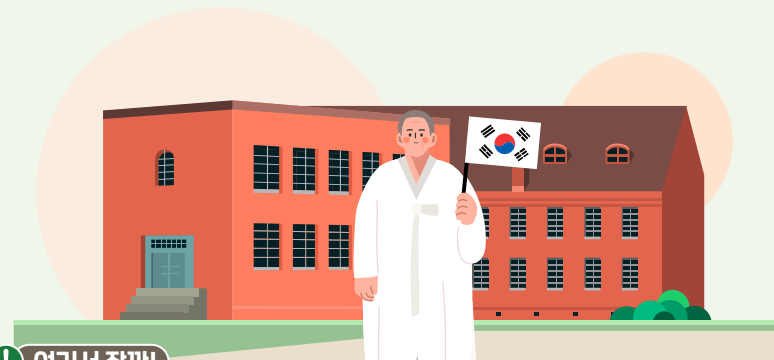
백초월 스님이 진관사에 숨겼다고 추정되는 태극기 - 국가유산청 제공

불교도 독립운동 본부'를 세우고, 1921년 항일 비밀결사체 '일심교(一心敎)'를 창설해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일심교는 '일심 만능주의', '군교 통일주의', '세계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스님은 군자금을 모아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지원하고, 항일 승려들이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님은 여러 차례 일제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1940~1943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44년에는 독립운동 군자금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해 6월 29일, 해방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 스님은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청주 용화사는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가로 거듭난 출발점이자, 그의 뜻이 마지막까지 이어진 역사적 장소입니다. 용화사에서 싹튼 그의 '일심(一心)'의 정신은 일심교 창설로 이어져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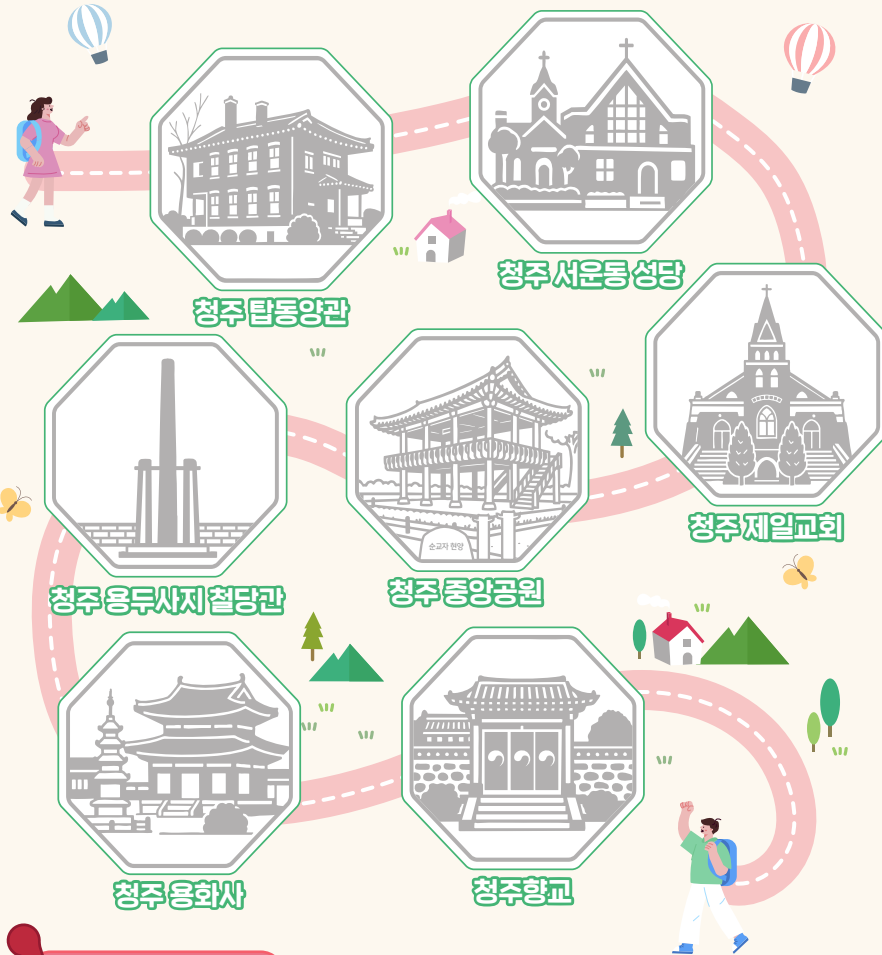
오늘날 용화사는 고려시대 칠존석불(보물)이 모셔진 천년 고찰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깃든 역사적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Q. 불교는 윤회를 믿는데,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나요?
- A. '윤회(輪廻)'는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체가 죽은 뒤에도 '업(業)'에 따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윤회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행동과 깊이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선한 행동, 즉 선업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행동, 즉 악업을 하면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윤회 사상은 지금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감의 길 스탬프 투어



스탬프 찍는 방법

- ❁ 처음 방문한 장소에 비치된 안내책자를 챙겨 스탬프를 찍어요 ❁
- ❁ 공감의 길 스탬프를 4곳 이상 찍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려요(선착순 증정) ❁
- ❁ 기념품 수령 장소는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



기념품 수령 장소

어울리길을 소개합니다!

은총의 길 기억의 발걸음

충북의 천주교 성지와 성당, 순교지를 잇는 여정입니다. 신앙의 역사가 깃든 공간을 걸으며 순교자들의 믿음을 되새기고,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쉬는 길 세계로 걷다

충북의 대표 불교유산을 중심으로 한 여정입니다. 천년 고찰의 전통과 세계적 가치를 느끼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길 벽돌 위에 새긴 마음

충북의 근대 개신교 건축유산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서양식 건축물과 순교자들의 발자취 속에서 근대문화의 의미와 신앙을 실천했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울리길 홈페이지(<http://www.cbrp.co.kr>)"에서 추억을 함께 나누어요!



홈페이지 QR

집필자

개신교 : 김성수(청주 성서신학원 원장)
전순동(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김정호(청주시 시민에디터)

불 교 : 지장스님(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신경식(충북불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유 교 : 풍경섭(청주향교 사무국장)

천주교 : 주영길(천주교 청주교구 사무처장)
김인환(천주교 청주교구 교구장 비서)
강우신(천주교 청주교구 사무처 차장)

정기범(충북대학교 사학과)
나의영(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소연(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장)
이지오(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이수영(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교육활용팀)

공감의 길 - 다름을 걷고 마음을 잇다

발 행 일 2025. 10.
발 행 처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
전 화 043-279-5400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re.kr:6038/>
디 자 인 디자인신화
인 쇄 소문인쇄사

저작권자 ©충청북도·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본 책자의 저작권은 충청북도,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에 있으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존의 증언, 융합의 여정



어울리길

CHUNGBUKEULRI - GIL